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 (화선), 936-0069 (전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하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세월 저축 실적 10배 최고
1년만까지 대출도 드립니다
◆3년이상 저축하시면 저축기
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080-023-4000

명예회장 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 김경삼/논설위원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6월 1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한 깃줄거리 흥·잡을 들이던 6·25동란이 발발한지 46년째, 전장의 상흔이아 복구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돼 대치하고 있다. 그 뿐만아니라, 현재 세계 30여개국 이 국지전을 벌이고 있어 파괴와 학살로 참혹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남북분단은 어떤 일이며 세계 전쟁 들은 어떤 일의 뿌리인가 생각해하는 호국의 달 6월이다.

(편집자 주)

코살리국의 비두다바왕은 다. (우비새계경)
4개의 군단을 이끌고 석가족 의 수도 카필라바스투를 향 해 진격했다. 부처님은 그들 이 지나갈 길가의 한 사 들어버린 나무 아래 앉 아 있었다. 신통제일인 목갈라나(목련존자)는 부처님께 제안했다. "실 망으로 칼질라성 위를 앞을가요?" 그러자 부처 님은 "별말을 사용한다 고해서 어찌 과거세의 인연을 얻을 수 있겠느냐, 석가족 사람들은 과거세의 인연으로 오늘 그 갈음을 받아 열망할 것이다" (중일아합경)

전쟁터에서 싸워 백 만인을 이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다. (법구경)

스스로 세력이 없으면 여 법히 다른 나라에 속할 것이 며, 다른 나라를 휘둘러 사 병(四兵)을 쓰지 않을지니 라. (우비새계경)

재가보살이 만약 자재함을 얻어 큰나라의 임금되면 자기 의 국토에 항상 민족할 줄 알고, 악인이 참소하거나 비방하여도 끝까지 믿고 받 아들이지 않으며, 법이 아닌 짓으로 재물을 구하지 않고 여법히 호국(護國)하여야 한

너희들은 서로 싸우지 말라. 만일 말로서 옳고 다음 을 가리려 한다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날이 없으리라. (중일아합경)

싸움이란 함으로 이상한 것이다. 이기면 다시 이겨야 하고, 항복하면 다시 항복 받아야 하고 해치면 다시 해 쳐야 한다. (중일아합경)

해리포터 30주년 의의·과제 3편
승기대 새학사 김포 확정 15편
진각중 창중 50년 14편
도선스님 추모 중단 준비 전무 13편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경주남산 지켜야 한다”

연재 순서

- 1 총론
- 2 남산은 어떤 산인가
- 3 남산 훼손실태
- 4 남산을 가꾸는 사람들
- 5 남산 이렇게 지키자
- 6 남산으로 떠나자

특별기획 경주남산 재조명

“민족혼이 울려 지른 보배로운 땅, 이 곳은/나민의 고향이 아닌 거리의 고향 이요/천년 신라의 얼이 가득찬 고도의 심장이다/.../우리 모두의 어머니같은 신이다.” 경주의 한 시인은 경주남산 을 어머니같은 신이라 했다. 남산 냉골 입구에 세워진 남산보호비에 새겨져 있

1 총론

갈망할망하던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이 경주도심을 우회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교부는 올 연말까지 노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나 8월중에는 새노선의 윤곽 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제부의 우회노선안을 지지해 온 학계 문화예술계 불교계는 지난 8일 경 주도심을 우회기로 한 정부결정을 일단 환영하고 있지만 노선박물권으로 불리는 남산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관 단이다. 문화재보호를 골자로 한 전체부안 에도 '남산'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경주남산을 훼손하는 우회노선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 새노선은 남산 서쪽 경 부고속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망산 이대로 들어와서는 안된다. 우회노선을 지지해 온 백지화추진위와 남산보호 시민단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또 한국불교재가회의 는 7월 월례포럼에서 '남산 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금오봉과 고위봉에서 흘러내리는 40여 개의 계곡과 산줄기로 이루어진 경주남산. 동서4km 남북8km 해발 494m의 아트란한 이 산에는 계곡과 능선 밭길 닿는 곳마다

고속철 우회결정 불구 남산보전 불투명 민족얼 담긴 중요문화재 가득

석불 석탑과 절터였음을 알려주는 주춧돌 이 놓여 있다. 석불 90여개, 석탑 80여개, 절터 112곳. 조석예를 때마다 울려퍼지는 범종소리. 온산이 극적이 아니었겠는가. 그런가하면 석기시대 유적에서부터 신 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태어났다는 신비의 우물인 나정(羅井) 그리고 신라의 종말을 맞았던 포석정 등이 자리하고 있는 신라 역사의 산이기도 하다. 보물 사적 지방유 형문화재로 지정된 것만도 35점에 이른다. 산 전체가 말 그대로 노선박물권이다.

그러나 곳곳마다 깨어진 주춧돌과 탑석 들이 흩어져 있어 가파른 터와 그 규모만 짐작할 뿐이며, 인위적 파손과 환경오염 등 으로 현상태의 보존조차도 비관적이다. 다형학 남산사람모임 신라문화원 경주정 토법당 등의 단체와 윤경택씨 등이 정기적 인 단상, 남산에서의 문화재 개회 등을 통

해 남산을 지켜오고 있다. 그동안 남산은 국립공원아면서 동시에 사적으로 지정돼 등산로 정비조차 어려웠다. 경주시는 올 하 반기부터 유물 유적의 도난과 훼손 산물방 지를 위한 관리인원을 증원 배치한다는 계 획이다.

향토사학자 윤경택씨는 “남산은 자연과 유물유적 경주시민이 함께 숨쉬고 있는 곳이며, 경주를 가장 경주답게 해주는 산” 이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 시,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와 기술을 토대로 옛모습을 되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생명력의 절반은 분명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선조 들의 지혜와 자비로운 얼굴까지 개발이러 는 명분으로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후손들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정성운 기자)

실명전환 안한 사찰땅 '수두룩'

소유권 상실위기...조계종 등기대책반 구성

부동산 실명등기 유예기간 6월30일을 앞두고 사찰명의로 전환해야할 조계종소유 토지가 여의도면적의 4.5배 크기인 1 천1백89만여평(956필지)으로 알려져 사찰소유토지의 실명전 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가운데 비 농자인 종교용지, 대지, 임야 및 기타 도로, 잡종지 등 1천1

백60여만평의 토지는 이날 말 일까지 실명전환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 해있다. <관련기사 2면>

조계종 총무원(원장 일주)은 지난 8일 부동산 실명등기대책 반(반장 원우재부부장)을 구성 하고 지난달부터 실시한 전국 사찰토지 등기조사결과를 토대 로 각 본말사에 부동산실명제 대응지침을 시달하는 등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책반은 지침을 통해 “전· 현주지, 사찰 소유자, 일반인, 국가 명의로 되어 있는 사찰소 유의 모든 토지는 등기명의로 에게 즉시 명의신탁해지 통고 서를 발송하고 '조계종 00 사'로 실명전환해야 하며 등기 명의자가 이를 거부하면 6월20



보탑사 통일대탑 지난 9일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한 중 북진천 보탑사 3층목탑. 황룡사 9층탑 의 기법을 재현한 국내 최대규모(높이 32.7m)의 목탑 사찰이다.

데생용 미륵반가상 전국 중·고교에 보냅니다

동창해주신 분

△선진 선운사도살입주지: (2구좌) △고동 각화사스님: 춘향중 봉화고(2 구좌) △도훈 진도쌍계사주지: 진도여 중 진도여고 진도신중(3구좌) △해 봉 지족암주지: 안동고(1구좌) △하도 영화 불심총법원상임이사: 부산 영도 여고 윤천여중 유락여중 부산상고 등 래여중(5구좌) △김원봉 광주교육청부 교육감: 광주일고(2구좌) △장수선 부 산불교신도회 이사: (5구좌) △김정순 천불사신도회장: 해운대고 문원여고 대연고(6구좌) △김명수: 죽대부속초 등학교(1구좌) △송양봉: 부산동주중 (1구좌) (1996년 6월12일 현재 총302구 좌 접수)

◇보급기간: 1996년 12월31일까지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다(지역 학교·출신학교·자녀의 학교 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 온라인구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은행입금후 반드시본사로 연락 바랍니다.
◇김정순씨



◇ 김원본씨



◇ 하도명화씨



◇ 김수신씨



◇ 김정순씨

우리는 신대륙, 사이버 스페이스로 간다

멀티미디어를 지나 사이버미디어로

한술이 21세기 첨단정보통신사화를 만들어갑니다.

사이버스페이스—
무한정보가 살아 숨쉬는 곳,
전혀 새로운 미래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곳에
한술 사이버미디어로 접속하십시오.

한술은 21세기 정보통신영역인
사이버스페이스를 개척하며
정보통신선전국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21세기 사이버미디어 - 한술텔레콤

Hansol

사이버 스페이스 (Cyber Space) '97
한술텔레콤은 21세기 정보통신영역인
사이버스페이스를 개척하며
정보통신선전국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